

CHANNEL

2026 FEBRUARY

Vol.277

**CES 2026,
기업 도약을 위한 AI 파트너
혁신의 길을 열다**

삼성 **KPMG**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HANNEL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CES 2026에서 피지컬 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표지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로봇과 AI 기술이 결합된 혁신을 이미지로 담았습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삼성KPMG는 기업의 미래 혁신 파트너로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CES 2026' 현장에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 08 **Market Reader**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더 빨리 다가온 예측의료의 시대
- 10 **Team Story** 수입차 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수입차 서비스팀
- 12 **Client+** AI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 아우토크립트
- 14 **Expert's Advice** US IPO 상장 유형 분석! 우리 기업에 맞는 선택은?
- 16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 18 **인재양성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캠퍼스를 떠나, 삼성KPMG로!
- 20 **삼성인라이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삼성인의 '건강관리법'은?
- 22 **마음온도+**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유기견 봉사단 '명사단'
-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칭찬의 기술
- 26 **♡ Care** 피드백을 건디는 기술: 구분하고 거리 두기
- 28 **Samjong News** 한국회계학회 회장단 방문, 회계업계 발전 방향 논의 외



04



08



18



22



24

CES 2026 현장에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세계 최대 ICT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가 지난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됐다. CES 2026은 혁신가들의 등장이라는 의미를 담은 ‘Innovators show up’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올해 CES는 4,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은 900여 개사가 참가해 주최국인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높은 참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Lisa Su), 레노버의 양 위안칭(Yang Yuanqing), 지멘스의 롤랜드 부시(Roland Busch) 등 글로벌 기업의 CEO가 직접 연단에 올라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 기조연설도 큰 관심을 받았다.

‘AI의 역할’ 확대와 ‘기업용 AI’의 진화

AI 관련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AI 접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용 AI 시장이 주목받았다. 특히 생성형 AI 성능 고도화와 신뢰도 확대를 기반으로, AI가 기업 내에서 활용되는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의 업무 환경과 목적에 맞춘 맞춤형 ‘기업용 AI’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

업 모바일트는 CES 2026에서 기존 AI 시스템이 사용자와 데이터 처리 공간 사이에 존재하던 물리적·구조적 간격이라는 한계를, 사용자의 실제 환경에 직접 설치·구동되는 엣지 기반 설계를 통해 해소한 엣지 AI PC ‘MLX-AI’를 공개했다. 또한 한국 스타트업 Wrtn.ax는 기업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AI 에이전트가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지원해 생산성 향상

을 도울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용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출품해 관심을 모았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본격화

CES 2026에서는 AI가 물리적 환경을 인식하고 행동으로 연결되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존재감이 크게 강화됐다. LG전자는 가사 노동에 최

CES 2026 10대 트렌드	
기술 유형	CES 2026 10대 트렌드 및 키워드
 게임 체인저 (Game Changer)	01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성형 AI 등 AI 성능 고도화와 신뢰도 확대를 통한 #AI역할 확대 •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기업용 AI 시장이 성장
	02 로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가 실제 물리 환경을 인식·판단·행동으로 연결하는 산업용, 가정용 #피지컬 AI 다수 공개 • 빅테크와 모빌리티 기업, 로봇 제조 기업 등 간 협력이 확대되며, #휴머노이드 로봇 존재감 또한 한층 강화
	03 공간 컴퓨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층 고도화된 스마트 글래스와 신경 손목밴드 등 공간 컴퓨팅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장 • 헬스케어·유통·패션·놀이·학습 등 다양한 산업 공간으로 #XR기술 확산 에 따라 새로운 사용자 경험 혁신 가능성 제시
	04 스페이스 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위성 개발 및 위성 탑재 모듈을 통한 #우주환경 특화 플랫폼의 개발이 확대 • 우주 환경에 대한 높아지는 이해도를 바탕으로 #신규 우주자원 개발과 새로운 공간의 활용 방식 혁신 기대
 확산 기술 (Scale Driver)	05 스마트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홈을 기반으로 한 #초개인화 된 스마트홈 디바이스의 확산 • 물리적 역할 확대를 통한 #가정용 로봇 등 가사 노동의 역할 변화 기대
	06 디지털 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를 실현하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웰니스 공간이 주목받음 • 사용자 데이터 분석 기반 질병 전 모니터링과 예방·관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예측형 헬스케어 서비스 확산
	07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Defined Vehicle) 등 차량의 소프트웨어 중심 혁신 지속 • 다양화되는 차량 활용 방식에 맞춘 #하드웨어 역할 변화 비전도 제시
	08 라이프스타일 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의 변화하는 의식주 라이프스타일에 시 필두의 혁신 기술이 결합된 #패션테크 #뷰티테크 #푸드테크 두각 •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적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 삶의 동반자로서 반려동물이 부각되며 #펫테크 부상
	09 핀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를 접목한 금융 혁신 흐름 속에서 핀테크 기업들의 #AI기반 기술-리스크 평가 솔루션 다수 등장 • #사이버보안 중요성 확대에 따라 AI와 블록체인 기반의 안전한 신원 확인·인증 시스템과 사기 기만 탐지 솔루션 공개
	10 ES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시대 속 전력 수요 증가로 전력 효율성 증대, 저전력 기술 등 #에너지테크, AI 기반 전력망 운영 등 #전력인프라 부각 • 인간의 행복과 안녕, 모두를 위한 기술 등 #인간안보 를 향한 기술과 신제품이 주목받음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는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신규 시장을 창출하거나 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기술을 의미. 확산 기술(Scale Driver)은 산업 규모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생태계 확장을 촉진하는 기술을 의미

적화된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선보이며 로봇의 일상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현대 자동차그룹 보스턴다이나믹스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통해 산업 현장 적용 비전을 보여줬고, 중국의 유니트리 로보틱스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휴머노이드 ‘G1’으로 대중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기술적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꼽히는 로봇 손 분야에서도 기술 고도화가 두드러졌다. 싱가포르의 Sharpa는 미세 촉각을 구현한 ‘Sharpa Wave’를 공개하며 인

간에 가까운 정밀 제어 기술 수준을 시연했다.

일상에 확장되는 공간 컴퓨팅

공간 컴퓨팅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점차 일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홍콩(SAR) Even Realities의 스마트 글래스 ‘G2’는 일반 안경과 유사한 디자인에 3D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결합해 시각적 부담을 최소화하며, 일상형 XR(확장현실) 디바이스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스라

엘 Wearable Devices는 신경 손목밴드 ‘Mudra Link’를 통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손과 신경 신호만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차세대 입력 인터페이스를 선보이며 XR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방식을 한 단계

1.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2. LG전자의 홈 로봇 ‘LG 클로이드’
3. 중국 유니트리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G1’
4. 프랑스 Dassault Systèmes의 미래 알츠하이머 치료 주제의 XR 전시
5. 일본 Innovative Space Carrier의 우주 물질 실험용 모듈
6. 스페이스링크의 바이오 물질 실험 위성





끌어올렸다. 프랑스 Dassault Systèmes는 가상 트윈 기술을 알츠하이머 치료 영역에 적용한 몰입형 전시를 통해, XR 기술이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우주 환경 신규 자원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국내 스페이스 테크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 환경의 신규 자원을 활용한 가치 창출 시도가 이어졌다. 한국 스타트업 스페이스린텍은 미세중

력 환경을 활용한 바이오 물질 실험 기술을 소개했으며, 일본 스타트업 Innovative Space Carrier는 위성 내부에서 다양한 실험 물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센서를 탑재한 모듈형 제품 'Narravity'를 출품했다.

AI 접목으로 진화한 스마트홈 '초개인화' 트렌드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구현된 '초개인화' 스마트홈이 주요 트렌드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스마트 TV 리모컨의 마이크를

활용해 이용자의 질문에 AI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가정 내 구성원별 음성을 구분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스마트 TV 기술이 등장하며, 스마트홈이 개인 중심의 경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예방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는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예측·예방 중심의 헬스케어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프랑스 Withings

의 'Body Scan 2'는 비침습적인 방식으로 대사 및 심혈관 건강을 정밀하게 추적하는 솔루션을 선보였고, 한국 기업 세븐포인트윈의 '알츠윈(AIzWIN)'은 1분 내외의 AI 음성 분석을 통해 치매 위험을 조기에 선별하는 예측형 헬스케어 기술로 주목을 받았다.

'자율주행' 중심의 모빌리티 혁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개인 차량 자율주행 기술의 보급 확대와 로보택시 확산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혁신과 하드웨어 기술 고도화가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엔비디아는 AI 학습 플랫폼 '코스모스(Cosmos)'를 기반으로 실제 주행 데이터를 결합한 자율주행 AI 플랫폼 '알파마요'를 통해 기술 비전을 제시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가변형 설계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모베드(MobED)'를 공개하며 활용성 확대 방향을 제시했고, 현대위아는 자동 제어 공조 시스템을 통해 모빌리티 편의성을 강화했다.

소비재 산업의 AX(AI 전환)

소비재 산업 전반에서도 AI 전환(AX)이 본격화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삼성전자의 'AI 뷰티 미래'에 탑재된 맞춤형 피부 관리 솔루션 '스킨사이트'를 선보이며, 뷰티테크가 개인화된 데이터 기반 관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인도 기업 Nosh Robotics는 수백 가지 글로벌 레시피를 자동으로 구현하는 AI 로봇 셰프를 통해 조리 과정 전반을 지능화하는 푸드테크의 미래를 제시했다.

핀테크 산업의 사이버 보안 강화

금융·보안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며 리스크 관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스라엘 Validit.ai는 생체 신호와 심리 분석을 결합해 딥페이크와 합성 신원을 탐지하는 솔루션을 공개하며, 금융·보험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미국 Cyberwrite는 기업의 사이버 사고 위험을 정량화하는 예측 알고리즘으로 리스크 관리의 정밀도를 한층 높였다. 한국 기업 크로스허브는 영지식 증명 기반 신원 인증 솔루션 'ID블록'과 간편 결제 솔루션 'B페이'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에너지테크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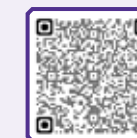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에너지 기술 역시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를 포함한 미래 전력 '9대 신기술'을 공개하며, AI 시대에 최적화된 전력 인프라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미국 Amprius Technologies는 고밀도 실리콘 음극 배터리 기술을 통해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와 미래 이동 수단을 겨냥한 에너지 기술 비전을 선보였다.

CES 2026이 제시한 미래 기술 환경과 경쟁력 확보 조건은?

CES 2026은 실체화된 '피지컬 AI'와 '보이지 않는 AI'의 공존을 통해, AI가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는 시대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기업은 내부 역

7. 삼성전자의 AI 기반 스마트홈 기술 시연
8. LG전자의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TV
9. 프랑스 Withings의 'Body Scan 2' 체험 모습
10.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 'MobED(모베드)'
11. 현대위아의 분산형 공조 시스템 시연
12. 인도 Nosh Robotics의 AI 로봇 셰프

량과 더불어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외적(Inorganic) 성장 전략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이 촉발한 산업 간 초융합에 따라 모빌리티를 넘어 반도체·금융·물류 등 전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쟁 구도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 관리 역량은 기업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저전력 기술 확보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술 융합과 개방형 생태계에 선제 대응한 기업만이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CES 2026으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 경제연구원**
최창환 책임연구원
 ☎ 02-2112-7438
 ✉ changhwanchoi@kr.kpmg.com
- 류승희 책임연구원**
 ☎ 02-2112-7469
 ✉ seungheeryu@kr.kpmg.com

CES 2026 10대 트렌드로 본 미래 산업 방향성

➡ 피지컬 AI 중심의 '보이는 AI'와 인간 삶 모든 곳에 산소처럼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AI'가 개방형 생태계 속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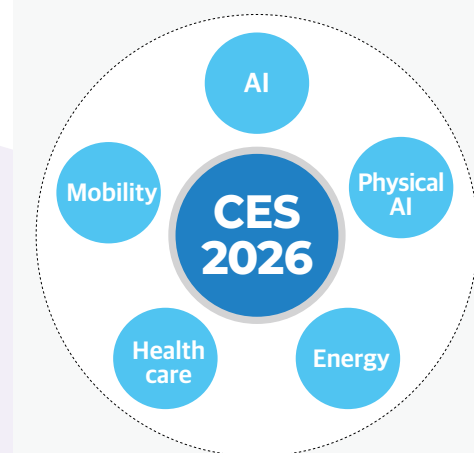
-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보이는 AI'와, 인간 삶 모든 곳에 산소처럼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AI'가 동시에 공존하고 고도화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AI를 둘러싼 기업 간 협업 기반의 개방형 생태계가 CES 전반에서 두드러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닌 빅테크·AI 개발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더욱 빠른 보폭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기업 내재적 역량으로 성장하는 내적 성장(Organic Growth) 외에도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업을 지속 모색하는 외적 성장(Inorganic Growth)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실행해야 함
- 피지컬 AI·개방형 생태계 기반 AI 등을 통해 AI 수익화 위한 혁신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AI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사업 기획의 조기 포착이 필요함

➡ 자율주행 주축의 모빌리티 기술·플랫폼 발전 가속화와 기업 간 협력 모델 다양화

- 자율주행 기술 진화와 함께 완성차·빅테크 간 협력 모델 다양화되며 이와 더불어 로보택시 등 AI 기반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됨. 동시에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을 포함한 최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제품이 주목받음
- 자율주행이 산업 간 융합의 대표적 기술 중 하나로 꼽히듯이, 자율주행 상용화가 속도를 내면 모빌리티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통신, 금융, 물류,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자율주행 시대에 대응하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함

➡ 예측형 헬스케어 확산·AI 시대 속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가 경영 핵심 과제로 부상

-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AI-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및 예측형 헬스케어가 미래 의료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
- AI 확산 등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 이슈가 경영 주요 어젠다로 떠올랐으며, 저전력 기술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 등 전력 인프라 개발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해야 함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더 빨리 다가온 예측의료의 시대

예측과 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

지난 1월 9일 막을 내린 CES 2026에서 헬스케어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예측의료(Predictive Healthcare)'였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와 생활습관 데이터, 의료 기록을 종합 분석해 질병 발생 가능성과 치료 반응을 사전에 내다보는 솔루션들이 다수 출품되며, 데이터와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선제적 건강 관리가 CES 헬스케어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는 '아프면 치료한다'는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의료 구조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 서비스는 질병 치료를 넘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예측의료는 의료의 중심을 병원에서 일상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치료에서 예측으로, 의료 패러다임의 이동

예측의료의 핵심은 의료의 출발점을 바꾸는 데 있다. 증상이 나타난 이후 병원을 찾는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유전체 정보, 건강 검진 기록, 생활습관,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해 질병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의료로 '사후 대응 서비스'에서 '사전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변화다.

이러한 전환은 의료의 역할 자체를 재정의한다. 의료기관은 진료 제공자에서 건강 위험을 관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환자는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자리 잡는다. 이 과정에서 예방·관리 중심의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며, 의료 서비스는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 기반 모델로 변화 중이다. 예측의료는 의료 비용 절감

과 건강 수명 연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의료 산업 전반의 구조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예측의료 산업의 성공 열쇠, 결국 데이터

예측의료 산업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데이터다. 최근 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성되는 행동 데이터, 소비 패턴, 환경 정보까지 결합되며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특히 원격 모니터링 기술과 AI 기반 분석 솔루션은 병원 밖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헬스케어 산업은 전통적인 의료기기·의약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건강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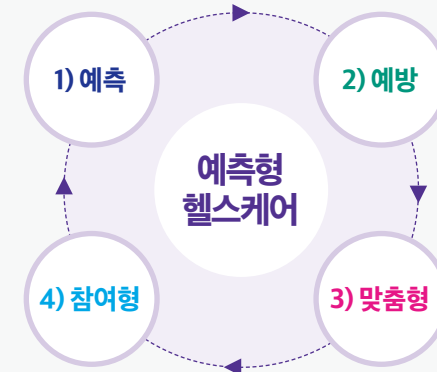
예측의료의 핵심 구조: 4P 의료 패러다임

1 예측(Predictive)

- : 개인의 위험을 조기에 규명하고, 질환 발생 가능성 조기 예측
- 내재적 요인: 유전자 다형성, 가족력 등
- 외재적 요인: 사회·경제적 지위, 개인의 의료 이력 등

4 참여형(Participatory)

- : 환자를 수동적 치료 대상이 아닌 능동적 건강관리의 파트너로 인식
- 환자는 자신의 위험과 개입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 환자가 능동적으로 치료 예방 과정에 참여
- 의료진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2 예방(Preventive)

- : 예측 단계에서 파악된 위험 요인을 기반으로 질병이 발현되기 전에 개입
- 생활습관 중재: 식단, 운동, 금연 등
- 의학적 중재: 백신 접종, 예방적 약물 사용 등

3 맞춤형(Personalized)

- : "모두에게 같은 치료"가 아니라, "개인별로 최적화된 의료" 제공
- 개인의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맞춤형 개입(intervention) 제공
- 환자가 자신의 위험 요인과 가능한 중재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교육
- 환자 의료인이 개인별 개입 계획에 합의

“ 예측형 헬스케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하고, 맞춤형 개입과 환자 참여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의료 패러다임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리 플랫폼, 디지털 치료 솔루션, 기업·보험 연계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는 배경이다. 예측의료는 질병 치료를 넘어 건강 유지와 위험 관리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시장을 확장하며, 의료 산업의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있다.

산업 확장의 문턱에서 마주한 과제와 기회

다만 예측의료 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표준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이슈다. 특히 의료 데이터는 활용 가치가 높은 만큼 관리 책임도 크기 때문에, 기술 발전 속도와 제도적 정비 간의 간극이 시장 확산의 속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의료의 제시는 방향은 명확하다. 의료가 더 이상 병원 안에서만 완결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의 일상과 생애 전반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 산업 참여자뿐 아니라 데이터, 플랫폼, 기술 기업에게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예측의료는 기술 도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다가왔다.

예측의료의 등장은 의료 산업의 작은 개선이 아닌 구조적 전환에 가깝다. 치료 중심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이전을 설계하는 의료로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다. 이 변화는 의료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헬스케어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시장으로 재편하고 있다. 앞으로 예측의료의 어떤 속도로, 어떤 형태로 확산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데이터로 여는 의료의 미래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방향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박경수 상무

☎ 02-2112-6710

✉ kyungsoopark@kr.kpmg.com

경제연구원 강민영 책임연구원

☎ 02-2112-6617

✉ minyoungkang@kr.kpmg.com



Navigating the Future of Automotive: 수입차 산업 변화를 주도하는 수입차 서비스팀

글로벌 자동차 시장과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국내 수입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삼정KPMG는 2025년 수입차 서비스팀을 출범했다. 수입차 서비스팀은 국내 수입차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차 산업 전문성 갖춘 감사·세무·컨설팅 전문가로 구성된 수입차 서비스팀

수입차 산업의 전환기.

New 비즈니스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 필요

최근 수입차 판매 구조를 중심으로 기존 딜러 중심 모델에서 직접 판매 모델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시장 환경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넘어, 업계 전반의 유통 구조와 경쟁 질서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의 성장세와 중국 신규 브랜드들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수입차 산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 플레이어들의 적극적인 행보는 기존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비즈니스 방식과 경쟁 구도를 한층 다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신규 진입 업체들이 선보이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고객 접점 방식은 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요구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존 기업들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재점검하고 보다 유연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일수록,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산업 전문성 갖춘 감사·세무·컨설팅 전문가, 수입차 통합 솔루션 제공

삼정KPMG의 자동차 산업 전문 본부(IM3)는 2010년 국내 최초 산업별 전문 조직으로 출범한 이후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본부의 깊은 업력과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수입차 시장 환경에 보다 정밀하고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2025년 '수입차 서비스팀'을 출범했다. 수입차 서비스팀은 IM3본부가 축적해 온 독보적인 노하우를 계승하며,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고객사가 올바른 비즈니스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신뢰받는 전략적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 10월에는 수입차 판매 법안 및 딜러사를 대상으로 수입차 비즈니스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업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매월 수입차 시장 동향 분석 자료와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팀의 가장 큰 강점은 글로벌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들과 수십 년간 협력하며 쌓아온 압도적인 트랙 레코드와 산업 전문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차 산업 특유의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와 회계 처리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감사, 세무, 컨설팅 전문가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으로 협업하는 'One-Stop Integrated Service' 체계를 통해 고객사의 복합적인 경영 현안에 대해 단편적인 진단을 넘어선 통합적인 비즈니스 솔루션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다.

수입차 서비스팀은 글로벌 신규 브랜드의 국내 시장 진입이 가속화되고 전기차 중심으로 모빌리티 생태계가 전환되는 환경 속에서, 고객사가 지속 가능한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직접 판매 모델로의 전환을 비롯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로운 경쟁 주체의 등장으로 더욱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정교한 수익성 분석과 프로세스 효율화 자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수입차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조언자를 넘어, 시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지는 맞춤형 인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수입차 서비스팀'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통합재무·회계 서비스	회계감사, 회계·세무 자문을 통한 안정적인 재무 운영 지원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 지원
• 딜러 수익성 분석	딜러 손익 분석을 통한 수익 구조 진단 및 개선
• 서비스센터 경쟁력 강화	적정 공임 산정 및 원가 분석을 통한 수익성과 경쟁력 제고
• 딜러사 운영 효율화 자문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 리스크 및 판매 변화관리	구조 변화에 따른 회계·세무 리스크 점검 및 내부통제·시스템 정립

'수입차 서비스팀'을 소개한다면?



김현석 상무(팀 리더)
hyunsukkim@kr.kpmg.com

“수입자동차 업계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수입자동차 시장에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No.1 자문팀이 되겠습니다.”

최준성 상무
jchoi13@kr.kpmg.com

“국내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 고객과 함께 생각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받는 자문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류수석 상무
suseokryu@kr.kpmg.com

“고도화되는 수입차업계의 세무 리스크, 정교한 분석과 명쾌한 전략으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AI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보안 기업 아우토크립트 AUTOCRYPT

2019년 8월 설립된 아우토크립트는 모빌리티 보안을 혁신하는 글로벌 테크 리더로서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미래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글로벌 기술 기업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보안 TS(Technical Service)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차량 보안 솔루션, 모의해킹, 침투 테스트, 보안 컨설팅 등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모빌리티 보안 선도 기업

아우토크립트는 자율주행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AI 모빌리티 보안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소프트웨어 보안 전문 기업이다. 지난 2019년 펜타시큐리티시스템에서 스피노프(Spin-off)하여 설립된 이후, 미래 차 보안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의 '2024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평가에서 글로벌 자동차 사이버보안 혁신기업 TOP 3에 선정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AI 모빌리티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아우토크립트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보안 TS(Technical Service) 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까다롭고 복잡한 유럽의 자동차 보안 규제를 심사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세계적으로 공인받았다. 또한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OEM) 및 부품사들이 글로벌 표준을 준수하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모빌리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보안 솔루션

아우토크립트는 차량 내부 보안은 물론 인프라와 전기차 충전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모빌리티 전반의 통합 보안 솔루션을 제공한다. EU의 TS 인증기관으로서 축적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UN R155-R156 등 국제 사이버보안 규제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나아가 자동차 영역을 넘어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 IoT, 산업 장비 및 전장 시스템 전반에 적용되는 EU의 사이버보안 원력법(CRA)에 대응하며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피지컬 AI 흐름에 발맞춰 아우토크립트는 피지컬 AI 시대가 요구하는 보안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기술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



1. 이석우 대표의 상장기념 타복식 행사 2. 아우토크립트 행사장에서 3. 데프콘 대회 아우토크립트 레드팀 참석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는 이러한 AI 보안 비전을 실제 기술로 구현한 핵심 솔루션들을 공개하며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지난 2025년 코스닥에 상장된 아우토크립트는 상장을 계기로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모빌리티를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보안 수요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에 따라 현재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파트너사와 협업하고 있다.

보안 기술 경쟁력을 만드는 인재와 조직 문화

기술력을 중시하는 아우토크립트는 삼성동에 해킹 연구소 미래 모빌리티 센터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아우토크립트의 기술 경쟁력은 국제 보안 경연대회에서의 성과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데프콘(DEF CON) 차량 해킹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며 기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4년에는 유럽 자동차공업협회(CLEPA)가 주관한 2024 CLEPA 혁신상에서 디지털 부문 최우수 혁신상(Top Innovator)을 수상했다.

‘보안은 곧 생명’이라는 사명감으로 뭉친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우토크립트는 직급에 상관없이 기술적 본질에 충실한 조직 문화를 지향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의사 표현이 가능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사회공헌 활동으로도 이어져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대회 후원과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기술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1

US IPO 상장 유형 분석! 우리 기업에 맞는 선택은?

2026년 현재, US IPO 시장은 단순한 자본조달의 장을 넘어 '성공한 글로벌 기업의 인증서'로 자리 잡았다. 나스닥(NASDAQ)과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향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입성해야 할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해 본다.



Q 왜 지금 'US IPO'인가요?

최근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으로 쏠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압도적인 유동성과 거래량은 물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표준이 된 2026년 미국시장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먼저, 압도적 자금조달(Fundraising)을 꾀할 수 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미국 시장의 거대한 유동성은 유니콘 기업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신뢰도와 브랜드자산(Brand)입니다. 나스닥 입성은 글로벌 파트너들에게 기업의 기술력과 신뢰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자, 브랜드 가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인재 영입의 전략적 우위(Human Resource)를 제공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 상장 주식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보상 체계는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Q US IPO를 준비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스크는 '상장 일정 지연과 비용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SEC의 질의응답 과정 중 재무제표 오류나 내부통제 미비가 발견되는 경우, 상장 일정이 상상 이상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관사(IB), 로펌, 회계법인 등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크게 증가하여, 최악의 경우 상장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상장 직후의 유동성 고갈과 주가 폭락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이 무리하여 상장하는 경우, 상장 직후 보호예수(Lock up)가 종료되는 시점에 매도 물량이 쏟아져, 이를 받쳐줄 기관투자자가 없는 경우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 이하로 크게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셋째로 집단소송입니다. 미국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 S-1 등 등록 서류에 작은 허위 사실이나 누락이 있어도 소송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상장 목적과 그에 맞는 상장 방식의 결정입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에 진출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이 큼니다. 기업의 상장 목적에 맞는 상장방식, 세금이슈,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투자금 소요, 인지도에 따라 상장방식(전통 IPO, SPAC, Direct listing, ADR)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시장의 강력한 규제 환경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미국 증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특히 PCAOB 기준의 감사, SEC의 상장승인 절차 등 미국상장기업 공시 수준의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US IPO 상장 유형과 각 유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US IPO의 주요 상장 유형으로는 전통적 IPO, SPAC, 직상장(Direct Listing), ADR이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 IPO (Traditional IPO)를 살펴봅니다. 한국의 쿠팡이나, 네이버 웹툰처럼 미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주관사로 공모주를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대규모 자금 조달과 안정적인 기관투자자 확보가 가능

상장 방식	추천 기업 유형	주요 특징 및 전략
Traditional IPO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성장기업	주관사(IB)의 네트워크 활용. 로드쇼를 통해 대형 기관 투자자를 확보하고 시장 안착을 꾀함
SPAC	빠른 상장이 필요한 성장기업	Time to Market 단축전략, 이미 상장된 SPAC과의 합병하여 기간 단축. 단, 최근 SEC의 규제 강화로 상장실무 난이도와 책임부담이 전통 IPO 수준으로 크게 올라감
Direct Listing	Brand 인지도가 높고 자금이 풍부한 기업	수수료 절감 전략.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식을 상장. 마케팅 비용과 IB 수수료를 아끼고 싶을 때 적합
ADR	본국 시장 지위 유지와 단계적 미국시장 접근 필요 기업	국내 주식을 담보로 증권 발행.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밸류에이션 재평가 유도

하나, 높은 수수료와 상대적으로 긴 준비 기간, 세무 이슈를 고려해야 합니다.

스팩상장(SPA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기업 인수목적으로 상장된 Shell company와 합병하여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상장 속도는 빠르지만 대규모 자금유출로 주가방어가 힘들고, 최근에는 SEC 규제 강화로 매력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직상장(Direct Listing)은 신주 발행 없이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바로 상장하는 방식입니다. 세계적인 음악 Streaming 기업인 스포티파이, 그리고 세계적인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회사인 팔란티어 등이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분 희석과 보호예수(Lock up) 부담이 없으나, 이미 높은 Brand 인지도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미국예탁증서(ADR: American Depositary Receipt)는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증시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한국의 포스코, LG디스플레이, 글로벌 기업으로는 파운드리 1위 TSMC (대만)와 반도체 노광장비 1위 ASML(네덜란드) 등이 있습니다. 본주를 해외에 옮기지 않고도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고 회계, 공시 체계가 본주 상장만큼 복잡하지 않은 장점도 있습니다.

Q 끝으로 US IPO 상장을 고민하는 우리 기업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미국 자본시장은 엄격한 규제와 높은 상장 유지 비용을 요구하지

만, 철저히 준비된 기업에게는 NASDAQ/NYSE 상장사라는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US IPO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상장 준비 과정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투명성,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글로벌 표준으로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상장을 고민하는 경영진 분들께 현재 우리 기업의 미국 상장 준비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를 권합니다.



NASDAQ Bob McCooley

나스닥 글로벌 상장부분을 총괄하는 부회장 Bob McCooley는 필자와의 뉴욕 현지 인터뷰에서 "나스닥은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라 '혁신의 고향'이며, 한국의 AI, K-콘텐츠, 배터리 기업들이 보여주는 역동성은 나스닥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실히 준비된 많은 한국 기업들이 US IPO를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CONTACT US

US IPO팀 황현동 상무

☎ 02-2112-0524

✉ hyundonghwang@kr.kpmg.com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를 둘러싼 법과 용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AI 기본법'부터 AI가 만들어낸 저품질 콘텐츠를 뜻하는 2025년의 단어로 선정된 '슬롭(Slop)'까지, AI 시대를 이해하는 데 꼭 알아야 할 핵심 용어들을 '알쓸사전'을 통해 살펴본다.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AI 기본법'

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AI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한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1월 22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법은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영향 AI 사업자에 대한 책무 규정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 운영 등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규제 최소

화·진흥 중심'의 정책 기조가 반영됐어요. 특히 이 법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외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AI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피하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는 AI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세부 기준이 다소 모호해 혼란이 우



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당초 방침대로 일정 기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기업 대상 컨설팅과 안내에 집중하고 있어요.

2025년의 단어 '슬롭(Slop)'



AI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로 '슬롭(Slop)'이 2025년의 단어로 선정됐어요. '슬롭'은 AI를 활용해 대량으로 만들어진 저품질 디지털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2025년 12월 14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는 '슬롭'을 올해의 단어로 발표하며, AI 확산과 함께 이 단어의 의미가 크게 변화했다고 밝혔어요. 원래는 '출렁거리다' 또는 '음식을 찌꺼기'를 뜻하던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을 뒤덮은 조악한 AI 콘텐츠

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메리엄 웹스터에 따르면 '슬롭'에는 ▲고양이가 말을 하는 황당한 영상 ▲영터리 광고 이미지 ▲유치한 선전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뉴스 ▲AI가 쓴 조잡한 책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돼요. 이에 대해 메리엄 웹스터는 "사람들은 이런 콘텐츠를 짜증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열광적으로 소비해 왔다"며, "이제 '슬롭'이라는 단어는 두려움보다는 조롱에 가까운 어조를 띠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온라인에 쏟아지는 온갖 저질 콘텐츠가 단 네 글자로 압축됐다"며, "영어의 표현력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18 인재양성소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캠퍼스를 떠나, 삼성KPMG로!

20 삼정인라이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삼정인의 '건강관리법'은?

22 마음온도+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유기견 봉사단 '명사단'

24 이동규의 두줄칼럼

칭찬의 기술

26 心 Care

피드백을 건디는 기술: 구분하고 거리 두기

28 Samjong News

한국회계학회 회장단 방문, 회계업계 발전 방향 논의 외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캠퍼스를 떠나, 삼정KPMG로!

졸업의 달 2월을 맞아, 빛나는 졸업장을 품에 안은 삼정KPMG 가족들을 만나본다. 대학 시절의 추억을 뒤로하고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새내기 삼정인들. 설렘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이 순간,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뎠을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들의 알찬 포부를 들어본다.



후회 없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기!

최순호 Associate (B&F1)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회계사로서, 졸업이라는 마침표와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학 생활을 비교적 오래 이어오다 보니 졸업을 앞두고 아쉬움보다는 '한 챕터를 넘긴다'는 후련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삼정KPMG와의 인연은 리쿠르팅 행사에서 시작됐고, 그곳에서 느낀 에너지와 분위기를 통해 이곳이라면 즐겁고도 치열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자'입니다. 흐름에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하고 도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향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감사인으로서 첫 시즌을 보내며,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며 신뢰받는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놀고, 즐기며!

장민정 Associate (ICE1)



▲ 대학시절 사진
◀ 입사 후 동기들과

대학 생활을 돌아보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아르바이트, 학회 활동, 치열하게 공부도 해보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친하게 지내던 학교 선배들이 신기하게도 모두 삼정KPMG에 입사했어요. 그래서인지 삼정KPMG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고, 결이 잘 맞을 곳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초년기에 형성되는 업무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지금은 제대로 배우는 동시에, 동기들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며 즐겁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이렇게 가까워질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잘 배우고, 잘 놀며, 즐겁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싶어요.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시험 준비로 치열했던 순간이 먼저 생각나지만, 야구 동아리 활동, 좋아하던 가수의 축제 공연을 보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렸던 소중한 추억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학교를 떠나 삼정KPMG 소속으로 저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로 시작한 법인 채용 설명회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특히, 그 말을 몸소 실천하는 리쿠르터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분들과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낙관적인 태도로 팀에는 활력을, 고객에게는 신뢰를 주는 회계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삼정KPMG의 푸른 로고처럼 밝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삼정KPMG 푸른 로고처럼, 밝고 자신감 있게!

조용현 Associate (Tax4)



▲ 대학시절 야구 동호회 활동 모습
◀ 입사 후 회정남과

열정과 반짝이는 마음으로!

성지현 Analyst (Deal Advisory1)



▲ 대학교 졸업 사진
◀ 입사 후 모습

지난해 삼정KPMG 감사본부에서 파트타임 근무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정신없는 시즌에 투입돼 바쁘긴 했지만, 팀원분들께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제 대학 생활의 절반은 삼정KPMG에서 일하는 회계사가 되기 위해 열람실에서 보낸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아가며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지만, 대학 시절의 열정과 반짝이던 마음을 신입사원으로서 다시 한번 이어가고 싶습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하며 작은 요소 하나까지도 책임감 있게 다루는 딜 어드바이저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안전지대를 넓혀, 사회를 무대로!

유채민 Consultant (Dig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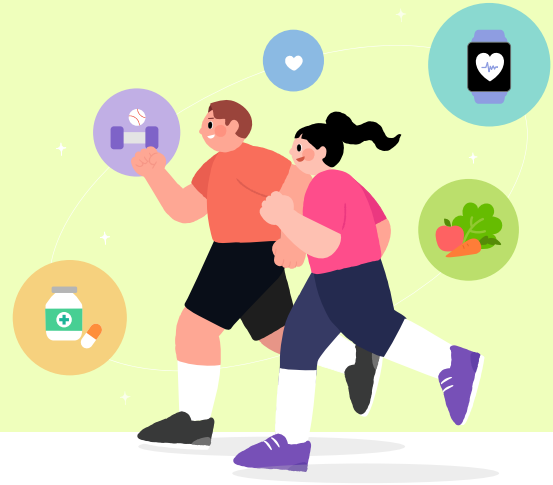


▲ 대학시절 사진
◀ 입사 후 모습

대학 생활은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합니다. 동기들과 나누던 수다, 밀려오는 과제 앞에서 막막해하던 순간들까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네요. 대학 시절을 통해 하나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 사회라는 무대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기술과 비즈니스의 접점에서 기업의 리스크를 다루는 사이버보안 분야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장'의 가치와 잘 맞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영역을 지속 확장해 가는 삼정KPMG라면 저 역시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You can't connect the dots looking forward; you can only connect them looking backwards", 지금 찍는 점들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지만, 돌아보면 결국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삼정인의 '건강관리법'은?

요즘 MZ세대를 넘어 전 세대에 걸쳐,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삼정인들은 일상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있을까? '삼정인라이프'에서는 삼정인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특별한 건강관리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주 2회 이상, 직접 요리해서 먹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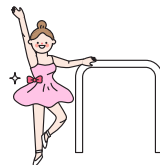
김나연 S.Senior (B&F3)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 배달음식에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미각도 둔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맛도 비슷 비슷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레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았죠. 먹는 것이 단순히 육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주 2회 이상은 꼭 직접 요리해서 먹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몇 달째 이어오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다는 뿌듯함까지 함께 느낄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네요. 사진은 활전복으로 직접 끓인 전복죽과 두부를 활용해 만든 두부 유부 초밥입니다.

꾸준한 영양제 섭취와 발레로 전신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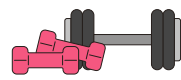
구유림 S.Manager (RC)



업무 특성상 눈 관리와 피로 회복이 중요해, 저만의 영양제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에는 유산균, 점심에는 멀티비타민(B군)과 아스타잔틴, 오후에는 메틸비타민(B군)과 아스타잔틴, 오후에는 메틸비타민(B군)과 아스타잔틴, 오후에는 메틸비타민(B군)과 아스타잔틴. 눈 피로를 줄이기 위해 틴틴이 눈 운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또한 장시간 앉아 있는 업무 환경으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필요성을 느껴 헬스장과 필라테스를 꾸준히 해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으로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발레는 전신 근육과 코어를 고루 사용하는 운동으로, 생각보다 강도가 높아 땀이 많이 나지만 재미까지 더해져 만족도가 큼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가며 체력과 자세를 함께 관리해 나가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근력운동 후 출근!

전하란 S.Consultant (MC)



매일 아침, GFC 인근 헬스장에서 약 45분간 근력운동을 한 후 출근하고 있어요. 여기에 더해 주 2회 정도는 3km 러닝으로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업무 특성상,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이라고 생각해 이 루틴을 선택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아침 운동이 다소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익숙해지니 하루를 더욱 상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체력이 안정되면서 업무에 한층 더 집중력 있게, 밝은 에너지로 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바디프로필 촬영이라는 개인적인 목표도 달성했어요!

저당·고단백 도시락과 따릉이 출퇴근!

장준혁 Associate (B&F3)



저녁 약속, 회식이 있는 날에는 한 끼를 저당·고단백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챙겨 먹고 있습니다. 한 끼 건강 도시락을 꾸준히 챙겨 먹다 보니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트러블이 줄어드는 변화도 느끼고 있어요. 또한 가능한 한 따릉이로 출퇴근하려고 노력하며, 주 10번의 출퇴근 중 약 8번 정도 따릉이를 이용합니다. 필드와의 거리가 약 7~8km 정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와 도어 투 도어 소요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아 오히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출근할 수 있어 더 만족스러워요. 실제로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대중교통 혼잡함에서 벗어나 정신도 한결 맑아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 마시기

이주호 Senior (B&F2)



매일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접하게 된 습관이기도 했고, 평소 올리브오일을 좋아해 자연스럽게 시작했는데요. 속이 한결 편안해지고, 몸속 염증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어 만족스럽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고영훈 S.Senior (Tax3)

점심을 먹고 GFC 1층에서 1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루틴을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흰쌀밥이 아닌 현미밥을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가 귀찮아서, 회사에 출근해 있는 동안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고자 계단 오르기를 실천했습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확실히 체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무엇보다 혈당 스파이크 예방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숨 찬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숨이 찬 느낌을 느끼고자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점심·저녁 식후 30분 걷기와 짧은 산책!

박환천 Associate (B&F1)

점심·저녁 식후 30분 걷기와 오후 중간중간의 짧은 산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하루에 꼭 걷는 시간을 만들려 노력하는데, 겨울철 산책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느껴집니다. 첫째는 감정 컨트롤입니다. 감사 시즌처럼 업무 스트레스가 몰릴 때 잠시 밖으로 나가 걷고 돌아오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지며 업무 흐름도 한결 나아집니다. 상황에서 잠시 거리를 두는 시간이 오히려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운동 효과입니다. 운동량이 줄어드는 시즌에도 하루 30분~1시간 걷기만으로 체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고, 식후 걷기를 병행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 시즌을 앞두고 있다면, 점심·저녁 시간을 활용한 산책을 추천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러닝

박현태 S.Senior (CM2)



저의 건강 관리 루틴은 러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일주일에 몇 번은 러닝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며, 그날의 컨디션에 맞춰 속도와 거리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체력 관리를 위해 시작했지만, 꾸준히 달리다 보니 목표가 생겼고, 마라톤 완주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러닝은 신체적 체력 향상과 함께 정신적인 회복까지 얻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거처며 지구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끝까지 해내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러닝을 통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과 페이스를 지키는 힘이라는 점을 배웠고, 그 덕분에 업무에서도 조금해지기보다 과정을 차분히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습관을 이어나가며 개인의 성장과 함께 조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삼정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출근 전 실내자전거 운동

김경원 Senior (CM1)



아침 출근 전 아이패드로 OTT 영상을 보며 실내자전거를 30분씩 타고 있어요. 평소 사무실 및 필드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 운동량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출근 전,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내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실내자전거라서 날씨 등 바깥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고 덕분에 심폐지구력 및 근지구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른 아침 땀 흘리며 몸을 움직여주니 개운하기도 하고요. 평소 업무가 바빠 OTT 영상을 볼 시간이 부족한데, 운동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을 보며 그동안 쌓인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어요.

사랑나눔봉사단을 소개합니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유기견 봉사단 '명사단'

삼정KPMG는 2023년 임직원 봉사단 '사랑나눔봉사단'을 신설해 환경 정화, 문화재 보호, 아동 멘토링, 보육원 봉사, 유기견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기견 돌봄과 견사 관리 봉사 활동을 통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명사단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의 행복을 위해 묵묵히 손길을 보태는 봉사단이 있다. 바로 유기견 보호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명사단'이다. 명사단은 보호소의 환경 정비부터 반려견 산책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보호소에 머무는 유기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순한 노동 봉사에 그치지 않고, 유기견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회복을 돕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봉사자들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일을 함께하며,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교감을 통해 유기견들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명사단은 정기적인 고정 모임보다는 보호소 방문이 가능한 일정에 맞춰 참여자를 모집하는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호소에 사전 방문 신청을 한 뒤, 현장 일정과 상황에 맞춰 봉사 일정을 조율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이루어 현장 봉사에 나선다. 최근에는 용인에 위치한 레인보우쉼터를 방문해 견사 청소와 산책 봉사를 진행하며, 유기견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과 따스한 손길로 사랑을 전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김연하 Manager 반려동물을 좋아하지만 직접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다른 방식으로라도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명사단 봉사를 시작했어요. 특히 SNS를 통해 보호소 아이들의 현실을 접하며,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죠. 처음에는 '내가 아이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위로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만나면서 생명에 대한 책임과,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일상에서도 동물복지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듯해요.

박채은 Senior 저 역시 유기견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실제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던 중 명사단을 알게 되었고, 작은 행동이라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직접 경험해 보니 유기견 보호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활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보호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며, 봉사자 한 사람의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도 느꼈고, 반려동물 복지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한수림 Senior 유기견 관련 정보를 접하며 보호소 현장에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부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노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또한, 봉사를 하면서 유기견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넘어 사회 구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체감했어요. 보호소의 업무량과 인력 부족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고, 일회성 봉사보다 지속적인 참여가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따스한 손길로 나는 교감과 참된 협업의 시간

한수림 봉사 당일, 활기차게 다가오는 강아지들 사이에서 유독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옆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자, 천천히 마음을 열고 제 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교감을 느꼈던 순간이었고, 눈을 맞추며 함께했던 그 시간은 지금까지도 잊지 않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채은 저는 폭설이 내리던 날 보호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견사 바닥을 청소하며 봉사자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색한 분위기도 잠시, 함께 몸을 움직이며 봉사를 하니 금세 분위기가 풀렸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필요한 일을 찾아 움직이게 되었어요. 유기견 봉사라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대감과 참된 협업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아지를 좋아한다면?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음 따뜻한 봉사

김연하 명사단은 사내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틀보다는 참여자들끼리 일정을 맞춰 보호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이려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박채은 전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참여할 수 있어요.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하니, 처음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도 부담이 적고, 특별한 준비 없이도 활동할 수 있어요.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편하게 연락 주세요!

한수림 주말의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 의미 있는 온기를 더하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하며, 함께 견고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큰 힐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혼자라면 망설여질 수 있지만, 동료들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칭찬의 기술

러시아인들은 “칭찬의 말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다”라고 외친다. 나아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고래가 아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칭찬이란 최고로 세련된 충고라는 예리한 평가도 있다.

칭찬과 질책의 본질

살면서 칭찬처럼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도 없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Maxim Gorky)는 “칭찬은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다”라고까지 말했다. 주위를 보면 박수와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본인이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다. 더욱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근엄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일수록 속 보이는 칭찬에 비굴한 경우가 많다. 놀라운 건 그리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재능보다 의지를 칭찬하라”

현실적으로 보면 조직에선 칭찬보다 인정이 더 중요하다. 칭찬의 남발이나 가식적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다. 일찍이 중국의 고수, 왕안석이 “지나친 찬사는 의심을 자아낸다(滯美之言 置疑於人)”고 했던 이유다. 특히 가식 칭찬은 일종의 모욕이다. 예컨대 격을 갖춘 신뢰 있는 CEO가 칭찬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부러워하지만, 수시로 말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는 등 존경받지 못하는 CEO가 칭찬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간부의 칭찬이 반갑지 않으면 그 조직의 신뢰도는 바닥이라 보면 된다. 결국 조직이 만족하면 ‘충성’이고, 개인이 만족하면 ‘아부’라는 거다.

칭찬과 질책. 이것은 양날의 검이다. 칭찬보다 몇 배 더 어려운 게 질책이다. 조직 생활에 있어 칭찬할 때를 놓치면 언제고 다시 할 수 있지만, 질책할 때를 놓치면 더 큰 화를 부르게 된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 당근과 채찍은 둘 다 반드시 필요하다.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질책할 일을 그대로 지나치면 궁극적으로 회사에 해를 끼친다. 이를 용인하게 되면 타 부서 전염으로까지 이어진다.

국내에 <팀장의 리더십>과 관련된 서적들은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있다.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업무로는 질책해도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유용한 Tip 한 가지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한 다음 칭찬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예상외로 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칭찬의 기술

연애의 전설, 카사노바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은 지성을 칭찬하고, 지성이 뛰어난 여성은 미모를 칭찬하라고 했다. 상대가 진짜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 늘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좋은 칭찬은 잘하는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을 찾아내 칭찬하는 것이다. 게다가 본인도 몰랐던 장점을 찾아 칭찬받으면 기쁨이 배가 되고, 상대는 당신의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게 된다. 또한 말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칭찬과 격려 방식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례 연구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던 회사가 있었다. 경영진은 시장 탓, 경기 탓을 하며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을 들여다보니 답은 의외로 단순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사무실에는 늘 긴장감만 흘렀다. 간부들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호통을 쳤다. 칭찬은 사치였고, 지적과 질책이 소통의 전부였다.

경영진이 상사들에게 물었다. “아래 직원들을 칭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다. “칭찬할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인식이 회사를 병들게 한 원인이었다. 직원들은 혼나지 않기 위해 일했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방어적 태도는 창의성과 속도를 모두 갉아먹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얼어붙은 조직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해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좋은 칭찬 한 마디에 두 달은 살 수 있다.”
천재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말이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인기 칼럼니스트(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제 PEN클럽 정회원) 및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이다.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유니크한 언어의 쇼츠, 「두줄칼럼」은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으로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피드백을 건디는 기술: 구분하고 거리 두기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평가와 피드백의 연속이다.

학창 시절에는 시험으로 평가를 받았고, 사회인이 된 후에는 상사와 동료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피드백을 마주하게 된다. 이를 성장을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응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상하고 부담을 느끼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심리 전문 상담가의 시선을 통해, 피드백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이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성장으로 재정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 피드백

직장인에게 '피드백'은 가장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입니다. 특히 인사평가 시즌의 피드백은 단순한 업무 검토를 넘어, 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자기애적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이때 많은 직장인들은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집니다. 반박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고, 수용하려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 심리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평가자를 '심판자'가 아닌 '동맹'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평가자를 동맹자로 전환하기 위한 세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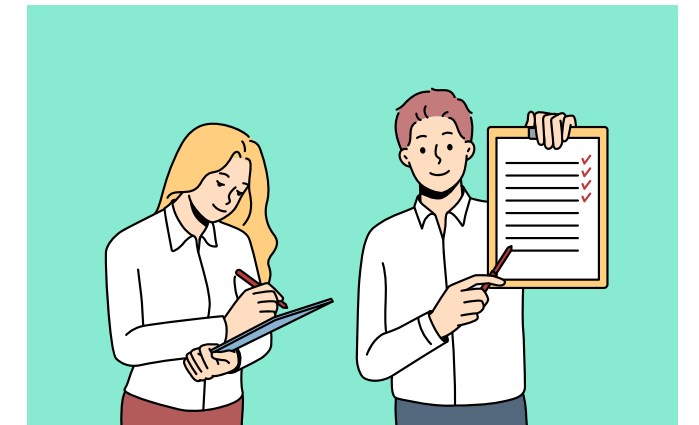
첫째, 존재(Being)와 행위(Doing)를 구분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오독합니다. 피드백은 특정 기간, 조직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업무적 행위'의 기록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매크로 환경이나 조직의 자원 등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개입된 결과물입니다. 평가가 당신의 인격이나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존재적 가치'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평가나 부정적인 피드백은 이번 시즌의 '업무 방식(Doing)'이 조직의 요구와 어긋났다는 신호이지, '당신(Being)'이 가치 없는 존재라는 사형선고가 아닙니다.

둘째, 관찰자와 행위자의 시차를 인정해 보세요. 피드백 과정에서 상사와 충돌하는 이유는 서로 서 있는 심리적 좌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의 '관찰자-행위자 편향(Actor-Observer Bias)'은 이 갈등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행위자인 나는 결과의 원인을 업무량이나 지원 부족과 같은 '상황적 요인'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관찰자인 상사는 동일한 결과를 개인의 역량이나 태도와 같은 '기질적 요인'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상사의 비판을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관찰자라는 위치적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는 심리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상사는 당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드러난 파편적인 행위만을 관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건강한 소외'를 통해 주체성을 회복해보세요. 피드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비결은 역설적으로 '건강한 소외'에 있습니다. 상사가 지적한 '행위'의 데이터를 수용하되 그것이 내 '존재' 안에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나면, 리더의 시선은 나를 낱알이 파헤치는 두려운 응시(Gaze)가 됩니다. 하지만 상사 또한 조직의 시스템과 더 높은 권력의 응시 앞에서 긴장하고 결여된 주체일 뿐입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시선을 나를 향한 심판이 아닌, 조직이 요구하는 '기표'(성과지표, 보고 형식, 우선순위 등)들로 드라이하게 번역하십시오. '그가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는 시선에서 벗어나, '시스템 안에서 내가 무엇을 조정하고, 어떤 자원을 요청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동할 때, 당신은 다시 주체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조율을 위한 전략적 동맹자

피드백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율입니다. 상사를 두려운 평가자가 아닌, 회사라는 게임판 위에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전략적 동맹(Alliance)'으로 재정의를해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 책을 써 내려가는 유능한 저자(Being)이며, 이번 평가는 단지 다음 장을 더 정교하게 쓰기 위한 편집자의 까칠한 메모(Doing에 대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피드백을 건디는 힘은 강해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능력, 그리고 거리 두는 기술에서 옵니다.



Profile

설진미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한국회계학회 회장단 방문, 회계업계 발전 방향 논의



지난 1월 27일, 한국회계학회 김기영 학회장(명지대 교수), 송민섭 차기 학회장(서강대 교수), 전규안 지속가능부회장(송실대 교수), 박경진 수석총괄이사(명지대 교수)가 삼정KPMG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회계학과 회계업계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업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1월 20일에는 한국관리회계학회 송신근 학회장(국립창원대 교수)이 방문해 관리회계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실무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1월 22일에는 한국회계정보학회 김태석 학회장(백석대 교수)을 비롯해 김정연 부회장(상명대 교수), 신일항 편집장(가천대 교수), 기은선 재무국장(강원대 교수)이 함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회계정보 분야의 연구 흐름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회계정보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CES 2026으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 주제로 대내외 강연 진행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CES 2026으로 본 미래 산업 트렌드를 주제로 한 대내외 강연을 진행했다. 1월 22일에는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열리는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 강연 ‘화산일주(화면 권김에 산업일주)’를 통해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와 최창환 책임연구원, 류승희 책임연구원이 연사로 나서, CES 2026의 주요 개요와 기조연설 및 컨퍼런스 그리고 현장에서 살펴본 10대 트렌드 및 혁신 제품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1월 16일에는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알쓸산지(알면 쓸데 있는 산업지식)’를 온라인 팀즈 라이브로 진행하여 AI, 로봇, 스마트홈,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공간 컴퓨팅, 라이프스타일 테크 등의 주요 기술 트렌드와 혁신 제품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될 미래 기술 변화와 비즈니스 시사점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공식 유튜브 계정에서 CES 2026 관련 보고서와 강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정KPMG 아카데미,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신규 콘텐츠 추가

삼정KPMG의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에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번 콘텐츠는 IPO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 체계에 맞춰, 비상장기업이 상장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Knowledge & Insights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IPO 준비 및 이후 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p>상장예비기업 교육프로그램</p>	K-IFRS 기반 재무제표 작성과 투자유치 준비 등 상장예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을 다룬다.
<p>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프로그램</p>	상장 준비 및 상장 이후 공시를 위해 요구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념부터 구축·운영·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p>재무결산 및 공시 교육프로그램</p>	스타트업부터 상장 준비까지 모든 단계별 기업의 재무담당자가 재무결산과 공시 업무 수행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아카데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삼정KPMG 아카데미
kr-fmacademy@kr.kpmg.com,
02-2112-7731

삼정KPMG IPO지원센터장 강인혜 전무는 “IPO를 준비하는 비상장기업에게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은 상장 준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재무결산과 공시에 이르기까지 실제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성된 만큼,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IPO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 아카데미’는 삼정KPMG 전문가들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비즈니스 인사이트와 산업별 동향을 담은 다양한 영상 및 발간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지식 플랫폼이다. 누구나 무료로 회원 가입 후 이용할 수 있으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접근 가능하다. 또한 사이트 내 [나의 강의실] 기능을 통해 현재 학습 중인 강의를 확인할 수 있고, 학습 기간 설정을 통해 기간 내 수료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 연도별 수강 확인서 출력 기능도 제공돼 체계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



생성형 AI 기반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 도입

ESG 공시 비교·분석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삼정KPMG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ESG Reporting Assistant)'를 도입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강화했다. 삼정KPMG ESG비즈니스그룹이 자체 개발한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는 기업 및 산업별 ESG 공시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고, ESG 전문가 관점의 질의응답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솔루션이다.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 주요 기능

ESG 공시 사례 비교·분석	국내외 다양한 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지식 기반으로 구축해 기업·산업별 ESG 사례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
ESG 기준·공시 질의응답	ESG 기준서 및 공시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 관점의 답변과 명확한 출처 제공
보고서 초안 작성 및 문안 개선	기업 특성에 맞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초안 작성과 문안 고도화로 작성·검토 시간 단축
영문 자동 번역 지원	국문·영문 보고서 작성 업무를 동시에 지원해 글로벌 공시 대응 효율성 강화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 과정에는 ESG 전문 조직인 ESG CoE 소속 전문가 수십 명이 메타 데이터 레이블링 등 핵심 작업에 참여했다. 또한, 삼정KPMG의 AI 개발 조직인 라이트하우스의 기술 역량이 결합돼 정확성과 신뢰성이 강화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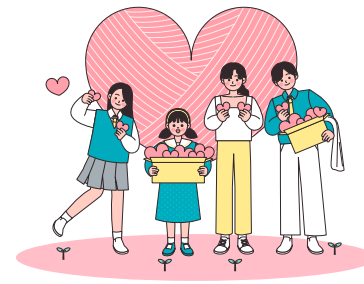
삼정KPMG CS1 부문 리더인 김진귀 부대표는 "AI는 컨설턴트의 실제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을 높여 고객에게 더욱 가치 있는 ESG 자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다국어 기반 보고서 분석 기능과 함께 주요 글로벌 ESG 기준과 기업의 ESG 수준을 비교·분석하는 갭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정KPMG는 ESG 리포팅 어시스턴트 외에도 감사 자동화 솔루션 '오딧세이 플러스(AuditSay+)', '스마트 리포팅 솔루션(SRS)', 'KPMG Tax Assistant 2.0', '딜마인드(DealMind)', '삼정 AI Chat', '스마트 정보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AI 기반 솔루션을 잇달아 도입하며 업무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랑나눔

자라나는 꿈나무 아동·청소년 성장 자립 지원 활동 전개



삼정KPMG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임직원 참여 나눔 활동 외에도, 연중 지속 가능한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돕는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먼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저소득 및 취약 계층,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새학기 준비를 지원하는 '새학기 준비 지원금 전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복, 학용품, 도서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하여 학업 시작 단계에서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 디지털 교육 및 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시내 지역아동센터 3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AI 문해력 교육과 법안 PC 기부를 병행하여,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소득 가정의 뇌병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긴급 수술비 및 입원 치료비를 지원하는 '뇌병변 장애아동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 치료 시기를 놓치지 쉬운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교육을 중심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자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Notice



*참가 신청: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세미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문의: kr-fmtax@kr.kpmg.com

'내국추가세 도입과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일시: 2월 26일(목) 15:00 - 16:30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이벤트 홀 (3층)
- 내용: 진행 순서 및 주제

주제	발표자
인사말	오상범 부대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설명	서유진 파트너
한국 도입 내국추가세 제도 주요 내용	민우기 파트너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고려 사항	강성원 파트너
내국추가세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과 취지	백천욱 파트너
Q&A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NEW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신규 오픈!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KPMG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 신규 구독 /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